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대전환 시험대”

광주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지하터널’ 상무광천선 2032년 개통
에코브릿지·광천그린로드 등 조성
우회도로·교량 신설로 교통량 분산

광주시가 11일 발표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은 버스중합터미널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체형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시범모델을 구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 개통 △도심급행버스와 구도심 연결 상생버스 신설 △광주전 상부 에코브릿지와 광천그린로드 조성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는 도로정비(우회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무광천선-BRT 모두 개통

상무광천선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터와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다르게 지하터널(NATM)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결수령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무광천선과 함께 도입되는 BRT는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현대 광주’ 개장 전인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와 BRT 건설비용을 방직공장터 개발과 신세계백화점 확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급행·상생버스 신설

상무광천선 개통 전에는 BRT 운행과는 별개로 광천권역을 경유하는 도심급행버스를 운영한다. 도심급행버스는 광주시 7대 주요생활권은 물론 광주송정역, 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기관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4개 노선 70km 구간을 운행한다.

급행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요 정류장만을 정차해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급행버스와 함께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순환하는 상생버스도 운행한다. 상생버스

는 복합쇼핑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복합쇼핑몰에만 머무르지 않고 양동시장·중앙로·금남로·동명동·양림동·문화전당 등을 방문해 쇼핑·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전 상부 에코브릿지 조성

신세계백화점과 더현대광주, 광천권역을 걸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아차 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km 구간은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1단계는 광천사거리에서 광천1교 육거리까지 400m 구간에 대해 차로 축소 후 보도를 확장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단계로는 기아차사거리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을 신세계 개발계획과 연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확장된 보행공간과 연계해 광주전 상부에는 반원형태의 ‘입체형 보행전용교’가 건설된다. 입체형 보행전용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광천권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체형 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8분 이상 소요되는 보행 접근 소요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된다.

●중장기 도로교통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는 ‘광천권역 중장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으로 광천사거리와 죽봉대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광천1교~신안교 간 왕복 8차로 도로 개설을 포함 총 4개 도로를 신규 개설한다. 주변도로 6개소는 확장한다. 이와 연계해 광주전 횡단 교량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서광주 IC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광암교와 광암고가교를 확장한다. 야구장과 더현대광주를 연결하기 위해 서방전에는 보행전용교를 설치한다.

강기정 시장은 “대·자·보 도시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인 광천권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광천권역 교통대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교통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소부장 특화단지 외국기업 유치 나선다

일본·유럽 기업 초청 팸투어

광주시가 ‘자율차 부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외국기업 유치에 본격 나섰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와 함께 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폴란드 등 소부장 기업 10개사를 초청해 ‘광주 소부장 특화단지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는 독일 자동차부품기업 ‘엘링크 링거’, 프랑스의 용광로제조기업 ‘이씨엠 테크놀로지스’, 벨기에의 EV 방열·방재 시스템기업인 ‘프로맷’, 일본 자동차 기계 부품기업 ‘알코닉스㈜’, 일본 토요타 협력 업체인 ‘한다중공업’ 등 외국기업 10개사 관계자 12명이 광주를 찾았다.

이들 기업 관계자는 광주 소부장 특화단지인 빛그린산단과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찾아 친환경차 부품 개발 및 친환경차 부품 인증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대한민국 1호 상생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기아 오토랜드 광주, 한국알프스의 생산시설을 견학했다.

이날 팸투어에서 광주시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비롯해 미래차 기업특화단지 전략, 광주투자환경 등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강진정 투자산단과장은 “국내외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해소 등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광주시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팸투어에서는 동진기업, 한국알프스, ㈜호원 등 지역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합작투자자와 기술협력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카이자키 히로시 광주시 일본 명예 투자유치자문관도 초청해 기업 간 교류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팸투어 기업들이 광주시 소부장산업 생산기반 등을 보며 미래차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와 손을 맞잡은 기업들이 미래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 e-모빌리티’ 미래 산업 확대 발판 마련

국가 공모 6개 선정…377억 확보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기술개발

전남도가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2024~2025년 국가 공모 중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377억원을 확보하며 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공모 선정 주요 사업은 △e-모빌리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형 초소형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82억원 △e-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 기반 구축 40억원 등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전남도는 영광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합한 차량 개발, 제조원가 절감 및 시생산 지원센터의 장비(8종)를 활용한 부품 생산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생산 부품은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조립·판매해 관세 및 원가절

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172억원으로, 충돌시험규정 강화에 대비한 충돌시험장 확장 및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해 호남권 유일 충돌안전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기업과 현대자동차·KGM 등 완성차 기업의 충돌시험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10억원의 낙수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영광 대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충돌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센터와 부품생산 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인프라와 e-모빌리티 기업을 집적화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기업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타깃으로 현지 조립공장 설립 및 공격개발원조(OD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사업 유치 등 전기이륜차의 동남아 수출 기반 확대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시군별 특화된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호남권 미래차 충돌안전 클러스터와 전자파 인증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테크노링 구축 등 미래차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도내 e-모빌리티 산업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국가사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임도 개방…추석 성묘객 편의 제공

전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를 오는 22일까지 탄력적으로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산불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 지역 여건별로 출입을 통제하던 21개 시군의 3096km에 이르는 임도를 추석 전후로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름철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임도 개방에 앞서 통행객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고수온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25억 지급

추석 전 지급…저금리 융자금도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 재개와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59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 지급하고, 융자금 19억원을 저금리(1.5%)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피해 원인이 규명된 여수 조피볼락 양식 피해어가에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어가당 지원한도 5000

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해 신속한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1차 피해복구 지원 이후 조피볼락 외 품종 및 추가 피해 신고어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완료해 2차 복구계획 시 반영하고,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수온으로 양식어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2차 재해 복구 추진 시에도 누락되는 피해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역에서는 지난 7월24일부터 고수온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어가에 어류 등 629만9000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다. 오지현 기자